

# 다급한 안보 이슈 여야 일단 재회

## 국방위·외통위 소집 합의... 사격훈련 입장차는 여전

여야는 20일 오후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를 열어 정부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부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 회동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는 21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격 훈련 결과와 북한군의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가운데 사격 훈련 강행에 따른 여야 간의 이견 대립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격 훈련 강행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냐는 추궁에 나서는 반면 한나라당은 영토 방위를 위한 군사 훈련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20일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과 관련, 한나라당은 "단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외통위는 김성환 외교교통상장관, 현인택 통일장관을 출석시켜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외교 갈등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의 결과에 대한 보고와 개성공단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구제역 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조만간 열기로 합의했다.

정육임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예산통과 문제로 정쟁 중이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간의 끊었던 대화의 계승되고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평도 군사훈

련과 관련해 삼일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현재에 관한심의 심판을 청구한 새해 예산안과 친수구역특별법 등에

대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권 관계자는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으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이라며 "하지만 사격 훈련 강행에 따른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산안 날치기’ 경기 북부결의대회 20일 오후 의정부역 앞에서 열린 예산 날치기 규탄 민주당 경기북부결의대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논의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 “의회 민주주의 살리기 앞장 설것”

### 민주당 의원 24명도 국회 자정 운동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16일 “물리력에 의한 의사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24명도 국회 자정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성명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다수의 폭력에 의한 국회 유린 행위로, 국회에서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횡포와 폭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의’에 대해 “날치기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원직을 걸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3선의 강봉균·김부겸·김영환·김성곤·원혜영·정장선, 재선의 김진표·김동철·김성순·김재운·김춘진·신낙균·신학용·우윤근·우재창·조경태·조경식·최인기·최재성, 초선의 박은수·서종석·송민순·이성남·이찬열 의원 등이 서명했다.

한편,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으로부터 맞아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12일 만인 이날 퇴원한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예산안 악법을 몸으로 막아서는 것은 거대한 일방적 권력에 대한 약자의 저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폭력으로 밀어붙인 자들이 국회폭력을 운운하며 마치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구조화된 국회폭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찾아야 할 해법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명숙 전 총리에 돈 준 사실 없다”

### 건설업체 대표 진술 반복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H건설사 전 대표 한모(49)씨가 법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진술이 있고 객

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한씨는 “억울하게 뺏긴 회사를 되찾고 싶은 욕심과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건 제보자 남모씨의 겁박 때문에 검찰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연협뉴스

## 한나라 정책위의장 심재철

### 호남투 지명직 최고 정운천

한나라당은 20일 새해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물러난 고홍길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3선의 광주 출신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을 내정했다. 또 안상수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



심재철 의원 정운천 전 장관 심효 전 대전시장을 각각 호남과 충청 몫으로 추천했고, 최고위원 모두가 찬성해 의결됐다고 배대변인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탄력받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

## 착공 3년만에 50% ↑... 자족형 신도시로

### 광주도시공사 등 시행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완공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나주시 급전·산포면 일원 731만6000㎡에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 5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자족도시의 밑그림도 상당부분 완성됐다.

시행자는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이다. 혁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 ▲전국 유일의 초광역 공동 조성 ▲양호한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형 독립 신도시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등이다.

◇조성 어디까지 왔나=공동혁신도시의 전체공정률은 착공 3년만에 50%를 넘어섰다. 9개 공구로 분할해 추진되고 있는 조성사업은 LH공사 구간이 60.7%, 전남개발공사 구간 30.0%, 광주도시공사구간 53.9% 등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오는 2012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64%의 공정률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 74대, 굴착기 44대 등 하루 150여 대 중장비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인 나주시청에서

혁신도시 간 5.2km 연결도로 공사도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15% 이상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량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은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발전 핵심거점=공동혁신도시는 광주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6km로 가깝고 전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전남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할 토지는 185필지(104만8000㎡)로, 현재까지 이주자택 등 분양률 89필지(32만4633㎡)가 매각됐다. 이는 면적 대비 31%로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인 한전 KDN(주)이 이달 내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17개 공공이전기관이 자리하고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이전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소를 비롯한 관련기관,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 등이 배치된다. 이전기관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들어설 혁신플러스터용지의 경우 111만㎡에는 이전기관이, 주택용지 190만㎡에는 단독과 공동주택 5만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과 녹지는 186만㎡로 도시 전체의 25.4%에 달한다. 한편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산업, 한국농촌공사 등 농생명산업,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산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사립대학교 직원연금관리공단 등 모두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우수 공기업’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영진·사진)가 광주지역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광주도시공사가 택지개발·주택건설·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공사의 핵심사업에 자립과 역량을 집중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과 과감한 경영개선으로 타 공기업의 발전과 개혁을 선도한 점이 인정돼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60여 곳의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도 업무실적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

템, 경영성과 부문으로 나눠 대학교수와 한국지치경영평가원의 경영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 성과와 역량 제고 ▲광주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우수 평가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체육시설 수명감사와 안내 직원 등 단순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해 원가절감에 나서고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전문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또 중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광동 2차 산업단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고를 노년건강타운 조성 등을 손조롭게 마무리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경영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



익, 1인당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가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나아졌으며, 지난 해 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1993년 도시개발공사 창립 이후 16년간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선진 고관관리 경영체제 구축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진 사장은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수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도시재생과 IT대회선수촌 조성, 진곡산업단지 조성 등 민선 5기 역점시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켈러트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업 시계 ‘자갈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열로우 골드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갈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자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35년 전통’ 수공업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지막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뚜렷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 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2,8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돼 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맞는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입문의 02-522-4355

**암을 다스리는 해조과학 후코이단**

암을 다스리는 해조의 과학 후코이단!!

세계는 왜 후코이단을 주목하는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가버섯, 산삼, 플루모리스 등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거나 그 작용을 돕는 역할에만 그친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포토시스(Apoptosis:세포의 자가소멸, 자살)라 한다. 후코이단은 암치료 및 예방에 응용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꽃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본문 중에서)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해 먹기 시작한 해조 후코이단 덕분에 위암 전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몸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유방암 유방 절제술 후, 남아 있는 한쪽 유방에도 암이 전이될까 두려웠는데, 해조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립선암 전립선에 생긴 암이 빠르게 전이되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긴 무리라고, 또 QOL,유지를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선택했다. 그결과 PSA수치가 기적적으로 낮아졌다.

난소에서 배, 간으로 전이된 암 난소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해조 후코이단 복용 후 폐암은 사라지고 간암도 많이 호전되었다.

대장암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해조 후코이단이 지난 아포토시스, 혈관신생 억제, 면역부활작용 덕분에 대장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뇌종양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덜기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먹은 것이 최상의 선택, 덕분에 면역력이 떨어지지않고 종양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암세포만을 골라 자살(아포토시스)로 몰아넣는 후코이단 전 세계 1,000여편의 논문이 증명하는 놀라운 기능!

무료주문전화 070-7809-5151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비 2,400원 본인부담)

노래하며 출주는 뮤직홀 “카라”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 할인합니다!!

(뮤직시스템 인테리어 최신시설완비)

단체예약 100명 가능!! 노래방 대형룸4개

동구 대인동 우체국 신청사 인근 예약문의 010-6727-3966

